

“힐링 캠프”



유창식

“필링 캠프”



심동섭

해줘야 할 두 좌완의 의욕 넘치는 ‘힐링 캠프’였다.

FA(자유계약)를 통한 마운드 보강을 이루지 못한 KIA는 내부에서 내년 시즌의 답을 찾아야 한다. 두 좌완 심동섭과 유창식에게 눈길이 쏠린다. 마운드의 큰 축을 구성해줘야 할 기대주. 특히 오랜 시간 풀리지 않고 있는 좌완 고민을 풀어줘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캠프 초반부터 오니카와에서는 ‘유창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진지하게 또 밝게 훈련에 임하면서 캠프의 MVP로 부상했다는 이야기였다.

캠프가 끝난 뒤 김기태 감독도 유창식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젊은 선수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한결 밝아진 표정과 움직임으로 팀에 녹아든 유창식은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유창식은 “몸 만드는 것은 똑같이 했는데 마음이 편해져서 운동을 하는 게 즐거웠다. 밸런스로 안 좋고 힘쓰는 포인트를 잃어버렸는데 캠프를 하면서 공 던지는 데 힘이 붙었고, 감을 잡는 것 같다”고 자신의 마무리 캠프를 평가했다.

KIA 좌완 이글 광주일고 선후배 심동섭·유창식

유창식

**동섭 형 덕분에 팀에 적응
마음 편하니 운동 즐거워
공에 힘 붙고 감 잡았죠**

유창식은 ‘마음’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고 미래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유창식은 “육도 많이 먹고 힘들었는데 내가 못했다. 프로에 와서 보지도 자주 바뀌었는데 내가 감독이라고 해도 나를 선발로 쓰지 못했을 것이다”며 “고등학교 때는 마음 먹은 대로 공을 던지고 잘했는데 막상 프로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잘 안됐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졌다. 생각도 많았다”고 돌아봤다.

2011년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7억의 계약금으로 한화에 입단한 유창식은 더딘 성장세로 가슴 앓이를 했었고, 올 시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트레이드를 통해 유니폼

심동섭

**캠프 몸 상태 그대로
중간이든 마무리든
믿음주는 선수 될 것**

을 갈아입어야 했다. 사연 많은 5년을 뒤로한 유창식은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자신을 잘 아는 광주일고 1년 선배 심동섭이 큰 힘이 된다.

유창식은 “처음 팀에 와서는 친한 사람도 없고 여색했는데 동섭이 형하고 함께하면서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많은 도움이 됐다. 아직 보여준 게 없는데 스프링 캠프도 잘 치러서 동섭이 형과 마운드에 힘이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특별한 후배 유창식과 다시 한술밥을 먹게 된 심동섭의 각오도 남다르다.

심동섭은 “창식아와 다시 야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본 사이라서 서로 뭐가 좋았는지 잘 아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내년 시즌 잘 해보자고 다짐했다”며 “올 시즌 초반에 (임)준섭이 형이 있다가 빠지니까 좌완 혼자 역할을 하면서 힘들었다. 있다가 없으니까 더 부담이 됐던 것 같다. 창식아가 어떤 보직을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같이 화이팅하고, 도우면서 마운드를 끌어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눈빛만 봐도 아는 후배와 꿈꾸는 강렬한 2016시즌. 준비도 순조롭다.

심동섭은 “올 시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구위도 좋았고, 밸런스도 좋았다. 이번 캠프에서는 아프지 않고 몸상태가 좋았다. 이걸 유지하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할 생각이다. 또 캠프에서 공을 많이 던지는 것을 목표로 했고, 많이 던지기도 했다”며 “중간이든 마무리든 마운드에 오르는 것은 똑같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는 믿음직한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국 간 박병호 ‘반응 뜨겁네’

강정호·류현진 응원에

현지 언론·팬 관심 고조

연봉 협상을 위해 미국 땅을 밟은 박병호(29)를 향한 미네소타 현지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미네소타 지역 매체인 스타트리뷴은 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 입단을 앞둔 박병호의 인터뷰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스타트리뷴은 전날 세인트폴 국제공항에 도착한 박병호와 약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박병호는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메이저리그 선배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고 했다.

세 선수는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조언해줬다고 박병호는 전했다.

박병호는 넥센 히어로즈에서 한술밥을 먹은 강정호와 특히 친분이 두텁다.

박병호는 “강정호한테 메이저리그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펼쳐지는 최고의 야구다. 형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하더라”며 “한 달 정도 지나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덕담을 해줬다”고 말했다.

스타트리뷴에 따르면 적지 않은 미네소타 팬이 박병호의 ‘베트 플립’(홈런 후 베트 던지기)을 기대한다. 박병호를 포함한 한국 선수들의 베트 플립 영상이 미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상대팀도 베트 플립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미국에서는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져 다음 타석 때 보복을 당하게 마련이다.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하던 박병호는 미국에서도 베트 플립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웃으면서 직접 영어로 대답했다. “노. 노. 빈볼(타자의 머리를 향하는 투구).”

미네소타에서 몇 개의 홈런을 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애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현수, ML 도전 시동

MLB 사무국, KBO에 신분조회 요청

김현수(27·두산 베어스)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도전을 향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KBO는 1일 오전 미국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으로부터 김현수에 대한 신분조회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현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메이저리그 구단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뜻한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KBO리그 선수의 신분을 확인하려면 MLB사무국을 거쳐 KBO에 요청해야 한다.

신분 조회는 MLB 구단이 한국 선수와 계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미국에 진출하는 데 신분상 걸림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KBO는 MLB사무국에 “김현수 선수는 현재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며, 어느 구단과도 계약 협상이 가능한 신분”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올 시즌을 마치고 FA 신분을 획득한 김현수는 두산과의 FA 협상기간에 “해와 진출을 우선 추진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두산은 김현수의 해외 진출 추진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현수는 프리미어 12 결승전이 열린 지난달 21일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메이저리그에서 뛰어 보고 싶다”며 메이저리그 도전에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는 올 시즌 타율 0.326, 28홈런, 121타점을 기록했고, 2006년 데뷔 이래 10시즌 동안 통산 타율 0.318, 142홈런, 771타점 등으로 활약하며 ‘타격 기계’라는 별명을 얻었다.

/연합뉴스

‘암벽여제’ 김자인 ‘사랑의 밧줄’ 잡다

동갑내기 소방공무원과 결혼

‘암벽여제’ 김자인(27·스파이더 코리야)이 소방공무원과 결혼한다.

김자인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자인이 오는 12월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3년간 교제한 동갑내기 소방공무원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김자인은 지난 3년간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 만남을 이어왔다고 올댓스포츠는 설명했다.

김자인은 결혼 후에도 선수생활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자인은 “이른 나이에 하는 결혼일 수도 있지만 운동하면서 힘이 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좋은 배우자와 함께 더 행복하게 클라이밍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종로 직후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아 주춤했던 김자인은 올시즌 월드컵에서 3번의 우승을 기록했다. 김자인은 올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월드컵 통합 랭킹 1위와 월드컵 리드 부문 랭킹 2위로 시즌을 마치게 됐다.

/연합뉴스



전인지



이보미

한국-일본-유럽-호주 ‘골프 퀸’ 자존심 대결

4~6일 뒤서 ‘더 퀸즈’…4대 여자프로 국가대항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4대 여자프로골프 투어 대항전 ‘더 퀸즈(The Queens)’에서 첫 우승컵 사냥에 나선다.

‘더 퀸즈’는 한국(KLPGA)과 일본(JLPGA), 유럽(LET), 호주(ALPG) 투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의 미요시컨트리클럽(파72·6500야드)에서 열린다.

1999년부터 시작한 한·일전이 발전해 올해 처음 열리는 이 대회에는 해당 협회 국제 선수만 출전할 수 있어 사실상 자존심을 건 국가 대항전이다.

팀당 9명씩 총 36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는 1라운드 포볼(2명이 한 조로 각자의 공으로 경기), 2라운드 포섬(2명이 한 조를 이뤄 공 한 개로 경기)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3라운드에는 전원이 싱글 매치플레이를 벌인다. 승리하면 3점, 무승부는 1점, 패배시는 0점이 부여된다. 총상금은 1억 엔으로, 점수를 합산해 우승한 팀에게는 4500만 엔이 주어진다.

KLPGA에서는 올해 투어 상금 랭킹 상위 멤버들이 모두 나선다. 올해 KLPGA

투어에서 상금·다승왕 등 4관왕을 쓸어담은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첫 우승을 위한 선봉에 선다. 시즌 3승과 함께 상금 순위 2위의 박성현(22·넵스), 8개월 연속 버디 기록을 세운 조윤지(24·하이원리조트), 시즌 3승의 이정민(23·비씨카드), 고진영(20·넵스)이 가세했고, 배선우(21·삼천리)와 김민선(20·CJ오쇼핑)도 힘을 보탠다.

여기에 추천 선수로 합류한 김세영(22·미래에셋)이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신인왕다운 샷을 선보인다. 무엇보다 올해 JLPGA 투어에서 6승을 거두고 투어 사상 최초로 상금 2억엔을 돌파한 이보미(27)가 ‘캡틴’으로서 팀을 이끈다.

JLPGA에서도 기쿠치 에리카, 우에다 모모코(주장) 등 스타 선수가 출전하고, LET에서는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로라 데이비스가 주장으로 출전한다. ALPG에서도 캐서린 커크, 사라 제인 스미스 등 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자존심을 건 경쟁에 출사표를 던졌다.

/연합뉴스